



## 곰팡이로부터 화분을 지키는 방법



기온이 내려가면 종종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의 흙 위로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이 목격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곰팡이는 다른 화분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대처해야 한다. 어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를 공기 중에 뿌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곰팡이 식별에서 퇴치, 예방의 팁을 '더팁' (thetip.kr)이 소개했다.

### ■ 식별



화분 흙 위에 하얗게 깔린 게 꼭 곰팡이라는 법은 없다. 물이 증발하면서 수돗물에 있던 칼슘 잔여물이 표면에 남은 것을 수도 있다. 만져 봐서 단단하고 잘 부스러지면 석회 자국이다. 석회는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 긁어서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털실처럼 부드럽다면 곰팡이이다. 이때는 보이지 않는 균사체가 화분 안쪽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흙 표면을 긁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 ■ 퇴치

화분 흙이 곰팡이에 오염된 정도가 심각하다면, 곧장 다음의 순서로 식물을 옮겨 심어야 한다. 이때는

곰팡이 균사체가 공기 중에 퍼지지 않도록, 화분을 실외로 가져가 작업한다.

1. 뿌리에서 오염된 흙을 살살 털어낸다. 곰팡이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오염된 흙은 비닐 등에 넣어 버린다.
2. 메탄올이나 식초를 사용해 화분을 씻어 준다. 흙으로 만든 화분이라면 오븐에 넣고, 200도에서 약 20분간 가열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곰팡이 균사체가 전멸한다.
3. 식물을 새 화분에 이식한다. 가을, 겨울에는 식물의 성장이 왕성하지 않고 휴식기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가위로 뿌리를 약간 다듬어서 넣어도 좋다.

### ■ 예방



과도한 습기는 곰팡이 사태를 초래한다.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화분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물을 주기 전, 화분 표면의 흙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한다. 아직 습기가 있다면 물을 줄 필요가 없다. 겨울철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물을 주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물 빠지는 구멍이 있고 받침이 딸린 화분을 사용한다. 이 경우, 물 빠지는 구멍으로 흙까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화분 바닥에 커피 필터나 천을 깔아준다.



-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면, 화분 받침에 물을 준다. 이렇게 하면 흙이 지나치게 젖지 않으면서 천천히 습기를 흡수하게 된다.
- 화분 아래에 배수용 팽창 점토를 깔아 주면 도움이 된다. 팽창 점토를 얇게 한 겹 깔고 그 위에 흙을 담으면, 여분의 습기가 잘 빠져나간다.
- 정기적으로 분갈이를 한다. 안에서 흙이 뭉쳐 있으면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표면에 고이게 된다.
- 화분 위에 새장 바닥에 까는 용도의 '새 모래'를 뿌리면, 흙 표면의 습기 증발을 촉진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

### ■ 주의사항

- 이미 생긴 곰팡이 위로 새 모래를 뿌리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 아래에서 곰팡이가 더욱 번성할 수 있다.
- 이전 화분의 흙을 털어낼 때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 흙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럼 오히려 화초가 새 화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
- 물에 곰팡이약을 타서 주면 안 된다. 곰팡이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죽일 위험이 크다.

사진=shutterstock



### 청국장 명가

구수한 향과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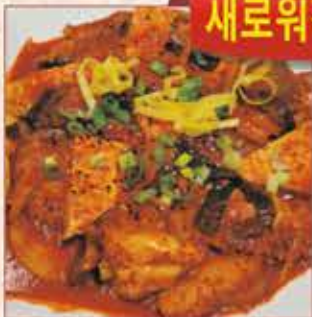
# 더부러

### 여름 스페셜

시원한 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국수!



### 새로워진 주인과 더 맛있어진 더부러



홍어조림



치킨



골뱅이무침



오징어 첼판볶음



천엽무침



해물파진

### 런치 스페셜

**12.99** (Weekdays)

비빔국수/졸면/칼국수  
수제비/오징어덮밥/청국장  
김치 or 해물볶음밥/콩국수  
오므라이스/돈까스정식

술과 함께 즐기세요~



**더부러 Double O | 909.597.3320**  
20627 Golden Springs Dr #1K, Diamond Bar, CA 91789